

주간기도정보

2025. 3. 1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사회 갈등 중재해야”

살롬나비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상태 알리려 한 통치자의 결단'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살롬나비)은 4일 발표한 논평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는 헌법적 권한에 입각한 계몽령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면 87체제 보강과 정치개혁, 국민통합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롬나비는 “윤 대통령이 2월 25일 헌재에서 67분간 최종 진술하며 계엄령 발포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개진했다”며 “직무에 복귀하면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맡기고, 외교·안보에 전념하며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8.17 체제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단점으로 인해 의회 독재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29명의 관료와 검사를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일인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롬나비는 “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가 줄어들더라도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발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특권·수를 줄이고 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상원 신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과거 군부 계엄과 달리 국민들에게 국가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국민 호소령이었다”며 “그러나 거대 야당과 내란몰이 세력은 이를 ‘장기 독재를 위한 내란’으로 프레임을 씌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총체적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이를 정치적 공작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살롬나비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해킹 취약성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밝히고자 했다”며 “선관위 전산 조작 및 사전투표 결과의 통계적 이상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살롬나비는 “탄핵 소추 당시 국민 70%가 탄핵 인용을 지지했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20% 이상이 반대로 돌아섰고, 특히 2030세대는 과반수가 대통령 지지로 선회했다”며 “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권 다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체주의로의 전락을 막기 위한 투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살롬나비는 한국교회를 향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는 말씀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사회를 지키는 법으로써 제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국민통합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다니엘 9:19)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잠언 11:10-11)

하나님, 총체적 위기를 맞은 국가의 비상 상황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 듣지 않고 방자히 행하여 당한 환난 앞에 주께 엎드리오니 주여, 들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지체치 마시고 주의 의를 나타내 주사, 악한 자들의 거짓으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이때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함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흥하여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소중히 여기는 성경 구절 7개

“적대 계층”으로 낙인 찍힌 북한 기독교인들, 성경 소지 자체가 ‘사형 선고’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체포와 수감,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하교인들은 성경을 몰래 보관하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읽으며 신앙을 지킨다. 북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7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눈으로 말씀을 보길 바란다.

1.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16)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 했다. 북한 성도들도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같은 신념을 품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북한은 점점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한 성도는 “이것은 우리의 순례이며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걷는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삶의 지표로 삼은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2.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1)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북한 성도들도 극한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감옥에 있는 동안 매일 시편 23편을 암송한 허우(가명)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이 끔찍한 곳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언젠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것”이라며 “살아남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했다.

3.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이사야 43:2) 이 말씀은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을 탈출하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현재 국경 감시가 강화되며 탈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총살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북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이사야 43:2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더욱 커졌다.

4.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태복음 10:1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이 이리를 만나게 될 것이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감시와 배신, 체포, 심지어 죽음을 의미하기에 북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 가족과 이웃조차 배신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 성도들은 예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5. “평안히 가라” (열왕기하 5:19a) 나아만이 우상 앞에 절해야 하는 현실을 고민했을 때,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답했다. 북한 성도들도 같은 딜레마를 겪는다. 김일성 일가의 동상 3만 5천여 개 앞에서 절해야 하고, 집에는 초상화를 걸어야 한다. 최근에는 김정운을 찬양하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한 성도는 “모두 속으로 거부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북한 사람들은 나아만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에서 위안을 얻는다.

6.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2)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신론 국가로, 어릴 때부터 신이 없다고 교육받고 세뇌당한다. 이 성경의 첫 구절은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과 복음에 대한 비밀 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다른 진리를 믿는 데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7.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요한계시록 21:4)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 구절과 요한이 묘사한 아름다운 환상을 붙잡고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 여러 면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들의 양식과 생명이다. 그들은 이 세상의 깨어짐이 일시적이며 언젠가 그들의 고통이 끝날 것을 알고 믿는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출처: 미국 오픈도어, 기도24·365본부 종합).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1-2)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립보서 3:14,20)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북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인 이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하오니 성경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믿음의 한계에 차오를 때마다 주의 약속을 주목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날에 주께서 내리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북한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이 이 땅 백성에게 비춤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많은 이가 주께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적 성 가치관 청소년 캠프 ‘어나더레벨 인 코리아’, 500여 명 참석
5차례 정통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성경적 역사관·창조관도 탐구·습득



정통 성경적 성 가치관 및 성경적 역사관·창조관을 탐구·습득하는 청소년 캠프 ‘어나더레벨’이 2월 17-19일 2박 3일간 경기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이하 에이랩)와 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 주최로 열렸다.

캠프 첫날인 17일에는 임순창 목사(충현교회)가 개회예배 설교한 후, 크리스천 유튜브 ‘책읽는사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했다. 이와 함께 김지연 에이랩 대표와 김다정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성경적 성 가치관’, 조평세 박사가 ‘기독교 역사관 교육’, 손영광 교수가 ‘과학으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각각 특강했다.

에이랩의 ‘정통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은 총 5차시나 진행됐다. 성경적 결혼관을 비롯해 음란물 중독 예방 및 근절, 미디어 절제, 남녀 성별의 소중함과 동성애 법제화의 문제점, 정결과 회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 등의 강의로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바로잡고, 그들을 회개와 결단에 이르게 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캠프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것이 전부 오류 없는 과학적 사실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설령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 청소년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선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여 청소년은 “결혼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가정의 가치에 대해 전적으로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저
도 모르게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세상의 성 가치관을 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했다.

에이랩 김지연 대표는 “성경적 역사관, 창조관, 세계관, 성 가치관 강의와 뜨거운 기도회, 소그룹 모임, 찬양의 시간,
어느 순간도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나더레벨 캠프
를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많이 진행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 있었다”
며 “다음 주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어나더레벨 in 중국’이 진행된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에이랩은 현재 총 2,300여 명의 성경적 성교육 강사진을 양성해 왔으며, 그중 지부원으로 활동 중인 강사들이 작년
기준으로 약 14,000차시 강의를 학교와 교회 등에서 진행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디모데전서 4:5-6)**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한복음 3:20-21)**

하나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속 위기에 놓인 다음세대들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캠프
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교육 현장에서조차 진리를 왜곡해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과 신앙을 무너뜨리
며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시도를 복음의 빛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음란과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오직 말
씀과 기도로 양육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유혹을 진리로 이기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거듭난 다
음세대와 교사들을 더욱 세워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삼으사 열방의 영혼들을 진리로 깨우치게 하
옵소서. 그리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